

< 10월 4일 주일 가정예배 설교 >

* 성경본문 : 출애굽기 19:5-6

* 설교제목 : 복 받을 준비를 하라

(출애굽기 19:5-6) “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,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.”

‘파넨카킥’을 아십니까?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찰 때, 정면으로 살짝 띄우듯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. 페널티킥을 찰 때, 대개는 골대 바깥쪽으로 빠르고 강하게 찹니다. 그래서 골키퍼는 슈트의 방향을 예측해서 어느 한쪽으로 몸을 날리게 되는데, 이를 역이용한 것입니다. 듣기만 해서는 쉬워 보입니다. 하지만 알고 보면 배짱이 있어야 하는, 참 어려운 기술입니다.

이처럼 쉽지 않은 기술을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? 이 기술은 1970년대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대표팀에서 뛰던 ‘안토닌 파넨카’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. 그는 소속팀에서 페널티킥을 연습하다가 이 기술을 고안해냅니다. 그리고 반복된 훈련으로 검증을 끝냅니다. 그러던 중 197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, 그는 승부차기 마지막 킥으로 나섭니다. 떨리는 순간! 그러나 준비되었던 그는 떨지 않고 이 기술을 선보여서 팀을 우승시킵니다.

우리는 흔히 ‘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’고 말합니다. 그러나 막상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. 왜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?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.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‘왜 복을 주지 않냐’고 원망하지만,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. 하지만 우리가 받을만한 준비가 되지 못해서,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. 준비가 되면 됩니다.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려면,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?

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자,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곧바로 약속의 땅을 주지 않은 것일까요?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‘진짜 하나님의 백성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.

하나님과 늘 교제하며,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'진짜 하나님의 백성'을 보면, 온 세상이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.

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?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.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기초해서,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.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. “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,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.”

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,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?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셔서,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? 혹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더라도,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.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‘아멘’으로 응답합시다. 그리고 그 믿음으로,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갑시다.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약속하신 대로, 우리를 위대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

기도하시겠습니다. “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! 감사합니다. 저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! 찬양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게 하시고,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,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.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”